

일본연극의 기원과 도래문화*

김현욱**

hwk33@hotmail.com

Contents

1. 서론
2. 翁猿樂(오키나사루가쿠)와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
3.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와 聖德太子傳承
4. 秦氏族의 翁信仰(오키나 신앙)
5. 荒神으로서의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
6. 결론

Abstract

中世의猿樂者たちは、自らを渡来系秦氏の後裔だとし、始祖として秦河勝を崇拜してきた。秦河勝は、能だけでなく、雅楽や伎楽の祖先とされており、芸能の起源説話に登場している。秦河勝が芸能の祖として言説化される背景を探ってみたいと考えたのがこの論文の出発点である。

芸能の起源とからまって語られる秦河勝伝承は、中世の聖德太子伝承が展開する中で、形作られたとみられる。能を大成させた世阿弥やその婿金春禪竹は、中世の聖德太子傳承のなかに含まれていた秦河勝の芸能起源伝説を能の起源説として援用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しかし、秦氏族の翁信仰をもとにして翁猿樂が成立する過程で芸能の翁神と秦河勝を一体とする言説が形成され、それが猿樂者たちの中で伝承されてきた可能性も排除することはできない。猿樂者集団が祭っていた秦河勝が、翁神である同時に荒神と重なる経緯も同様に考えられる。

猿樂者集団は、鬼の芸能を翁の芸能として飛躍させ、日本演劇の起源ともいえる翁猿樂を成立させた。能や歌舞伎は、翁猿樂をもとに生まれたものである。翁猿樂は、翁面をつけることで翁神と化した老体の神と童子による呪術的なパフォーマンスである。翁猿樂における翁神や翁面の由来は、渡来系秦氏族の翁信仰から見出すことができる。まず、翁神は、鍛冶翁から童子として変身した八幡神の巫俗的な側面と、稻荷神や新羅明神が持っている鬼や荒神としての側面、賤民に近い現れ方をする松尾神の卑しい側面、これらすべてを持っている。以上で取り上げた八幡神・稻荷神・松尾神らは山の神であるという共通点を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G00049).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강사

持っている。このように猿楽の翁神は、山岳修験文化の世界で活躍していた翁神を信仰する翁信仰を背景にして誕生したとみてよいだろう。次に、翁面は、猿楽者集団によって神霊を象徴する神体として崇められてきたが、神聖視されてきた翁面の本質も神が翁として、または荒神としてあらわれる修験文化のなか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

また、秦氏族の祖先とされる秦河勝が翁神であると同時に荒神の神格をもっているのも中世に活躍する山の翁神の場合と共通する。日本古来の山岳信仰に外来の宗教文化が集まることで成立した修験道においては、翁と荒神がほとんど重なりあう位相であられるのである。

Key Words :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즈) 翁神(오키나 신) 翁信仰(오키나 신앙) 聖徳太子 鬼(오니) 荒神

1. 서론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예능에는 能(노), 歌舞伎(가부키), 浄瑠璃(조루리)가 있다. 能은 중세에, 歌舞伎와 浄瑠璃는 근세에 성립하였지만, 근현대에 발생한 다른 장르의 무대예술과 다름없이 현재까지도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能·歌舞伎와 같은 전통연극의 원류는 翁猿楽(오키나사루가쿠)¹⁾라 불리는 예능이다. 중세에 성립한 ‘翁猿楽’는 할아버지 형상의 翁神(오키나 신)과 童子에 의한 주술적인 歌舞를 통하여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퍼포먼스이다. 새해 초에 각지의 能(노) 퍼포먼스 전용극장²⁾에서 翁猿楽가 공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翁猿楽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翁神을 숭배하는 ‘翁信仰(오키나 신앙)’을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중세를 중심으로 한 翁信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翁神들의 대부분이 대륙에서 건너간 ‘渡來神(外來神)’이며, 특히 고대 한국으로부터 건너간 秦氏族(하타 씨족)들이 제의하던 신이라는 점이다. 翁信仰이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종교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翁

1) ‘翁(오키나)’라 칭하기도 한다.

2) 노(能) 퍼포먼스 전용극장을 ‘能樂堂’이라 칭함. ‘国立能樂堂’ ‘觀世能樂堂’ ‘宝生能樂堂’ 등이 대표적인 能樂堂.

猿樂의 발생과 성립과정에 고대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³⁾ 이처럼 翁猿樂의 성립배경에 대한 연구를 秦氏族과 관련된 도래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 할 때, 스스로가 翁神으로 신격화 되었으며 중세의 예능인들 사이에서 숭배되어 온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에 대한 고찰을 간과할 수 없다.

渡來人들 중에서도 명성 높은 秦氏는 유수의 거대 씨족이었다. 그 지배조직, 생산 활동, 왕권과의 관계를 축으로 秦氏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또 다른 측면, 즉 예능·종교문화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秦河勝는 秦氏 집단의 선조로 여겨지며, 雅樂·伎樂·能 등 고대 일본 예능 각 장르의 始祖로 일컬어지고 있다. 秦河勝가 예능의 신으로 등장하는 설화들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유포과정에 대한 고찰은 翁猿樂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한편, 能의 유래담에 따르면 秦河勝는 포악한 ‘荒神’의 성격을 갖는 翁神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荒神으로서의 翁神에 대한 고찰 또한 翁猿樂의 성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의 하나이다. 荒神은 고대의 산악숭배사상과 도래의 종교문화가 습합되어 성립한 山岳修驗文化(修驗道)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山神의 한 유형이다.

秦河勝가 翁神이며 동시에 荒神으로서 출현한다고 하는 전설은 翁猿樂에 있어서의 翁面(오키나 가면)이 선한 인상의 할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鬼(오니)와 같은 두려운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전설의 구조와 공통된다. 翁猿樂는 장구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을 형상화 한 翁面을 쓰고 연희하지만, 能의 이론서에 의하면 翁面은 선한 모습과 성난 도깨비 모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能 연기자들은 양면성을 지닌 翁面을 매우 소중히 다룬다. 등장인물이 翁面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높이 받들고 나와 무대 위에서 가면을 꺼내 쓰고, 가면을 착용함으로써 신격화된 등장인물은 제의적인 가무를 연희한다. 고대의 예능인 집단이었던 猿樂者(사루가쿠사)들은 翁面을 神靈을 상징하는 ‘神體’로 받들며 숭배해 왔으며 그 전통이 훗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신성시 되어 온 翁面의 본질 또한 신이 翁로 때로는 鬼와 같은 荒神으

3) 秦氏族과 중세의 渡來信仰, 특히 ‘翁神’ ‘翁信仰’에 대해서는 金賢旭(2008) 『翁信仰の生成-渡來文化と中世の神々』(思文閣出版)참조.

로 출현하는 山岳修驗文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能 기원설에 등장하는 秦河勝 전설의 유래와 그 유포과정을 살피고, 나아가 秦河勝의 荒神으로서의 神格化를 도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山岳修驗文化 속에서 찾아, 翁猿樂의 성립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山神이 翁神과 鬼(오니)로 나타나는 설화에 대한 고찰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진 翁面の 유래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翁猿樂(오키나사루가쿠)와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

秦氏族은 고대 한국으로부터의 도래(渡來) 집단으로서 일본 기층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지만, 秦氏가 일본으로 도래한 5, 6세기 이후부터 4, 5백 년 사이의 그들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특히, 그들의 예능·종교문화에 있어서의 활약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12세기 이후의 중세에 이르게 되면 종종 秦氏가 예능·종교문화와 깊게 관련된 씨족으로서 각종 문헌에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예능 장르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이다.

翁猿樂(오키나사루가쿠)의 유래와 翁神(오키나 신)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金春禪竹(곤과루 쯤치쿠)의 『明宿集』에는 秦河勝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聖德太子 때(중략) 猿樂舞(翁舞)를 연희하면 온 나라가 태평해 진다고 해서(太子가) 秦河勝에게 명령하여(중략) (秦河勝가)翁猿樂를 추었다.(중략) 이 후 秦河勝의 자손 들에게 翁猿樂를 연희하게 하였다.⁴⁾ (「翁の御姿と神樂猿樂」條)

라고 하는 내용이다. 『明宿集』의 또 다른 부분에도

4) 「上宮太子の時(中略) 猿樂舞を奏すれば、国穩やかに、天下太平なりとて、秦の河勝に仰せて、(中略) 翁を舞ふ。(中略) 秦の河勝の子孫に仰せて(中略) 舞わしめ給ふ」(우리 말 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동일.)

聖德太子가 河勝에게 翁舞(오키나마이, 翁猿樂)를 연희하라 하시어(중략) 처음으로 翁舞를 추었다.(중략) 이러한 인연을 생각해 볼 때 秦河勝는 翁神이 모습을 바꾸어 태어난 것임에 틀림없다.(중략) 이 가업을 秦河勝 자손에게 물려주고 떠났다.⁵⁾ (「秦河勝の事」條)

라고 적혀있다. 이러한 기록은 翁猿樂가 秦河勝에 의해 시작되고, 중세의 猿樂者들이 秦河勝를 자신들의 선조라 여기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秦河勝가 翁神과 同體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의 秦河勝 관련 내용을 翁猿樂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翁猿樂와 秦河勝의 긴밀한 관계를 논한 金春禪竹의 說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기록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秦河勝가 등장하는 시기와 翁猿樂의 성립 시기는 5세기 이상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秦河勝가 翁猿樂를 처음 연희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첫째로, 설화세계에서 전개되는 秦河勝와 聖德太子와의 관련, 두 번째로는 秦河勝가 翁神(오키나 신) 혹은 예능의 신으로서 부각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風姿花轉』 『明宿集』과 같은 能(노) 이론서에 의하면 중세에 能(노)를 대성시킨 世阿弥(제아미)가 秦河勝를 자신들의 始祖로서 숭배하고 있으며 伎樂과 雅樂의 세계에 있어서도 秦河勝를 예능 집단의 선조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翁猿樂의 발생과 성립을 전하는 『申樂談儀』 『明宿集』 등의 能 이론서에 있어서도 秦氏를 둘러싼 전설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중세 이래 秦氏族과 예능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秦氏 일족에 관해서는 고대 이래 正史(正史)에 등장하는 경우도 적으며 예능과의 관련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문헌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秦河勝는 물론 秦氏가 일본의 예능 세계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배경이나 그 유래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또, 秦氏에 관해서는 고대에 중심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며 중세에 있어서의 秦氏族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다. 그나마 能의 이론서에 기술된 秦河勝 전승마저도 단순히 전설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 이상의

5) 「(上宮太子) かの河勝に猿樂の業を仰下されて(中略) 翁を舞ひ初む。(中略) この因縁・結縁を以て思ふに、かの秦の河勝は、翁の化現疑ひなし。(中略) 業を子孫に譲りて、世を背き」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秦氏族과 翁猿樂 성립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猿樂(사루가쿠)⁶⁾ 역사의 문제를 상세히 논한 能勢朝次(노세 아사지)도 大和猿樂(아마토사루가쿠)⁷⁾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는 円満井座(엔만이좌)의 猿樂가 秦河勝을 선조로 하는 등, 秦氏를 둘러싼 전설이 能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시 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처럼 전설적인 것은 전설적인 것으로서 취급해야 한다” 라고 하며, “秦氏安(하타노 우지야스)를 円満井座의 선조로 생각하는 전설도 『本朝文粹』의 기록 등에 의해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⁸⁾ 表章(오모테 아키라)는 「世阿彌(제아미)의 생애를 둘러싼 연구」라는 논문에서 世阿彌가 ‘秦元清(하타노 모토키요)’ 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秦氏를 칭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노 퍼포먼스 연구 상 맹점으로서 남아있다” 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⁹⁾ 伊藤正義(이토 마사요시)는 『金春禪竹の研究』라는 저서에서 秦河勝에 대해 거론하면서 예능인으로서의 秦氏族은 天王寺와 広隆寺의 두 계통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円満井座의 가계에 天王寺 秦氏의 피가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¹⁰⁾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중세의 秦氏族의 能와의 관련이 역사적 실상으로서 주 목받고 있지 못하다.

물론 秦河勝를 둘러싼 전승들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식의 접근 방법은 피해야 한다. 선학들 역시 秦河勝와 예능의 관련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 해왔기 때문에 예능사에 있어서의 양자의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의 인물인 秦河勝에 대한 전설은 12, 3세기 이후의 중세기에 이르러 더

6) 고대, 중세에 행해졌던 예능. 또는 能樂(能와 狂言)에 대한 旧称.

7) 중세시대에 나라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대표적인 노의 네 그룹. 結崎(유자키)·外山(도비)·円満井(엔만이)·坂戸(사카도)의 四座. 각각 観世(간제)·宝生(호쇼)·金春(곤파루)·金剛(곤고)의 四座가 되었다.

8) 能勢朝次(1938) 『能樂源流考』, 岩波書店, pp.302~322

9) 表章(1986) 『能樂史新考』, わんや書店, pp.16~18

10) 伊藤正義(1970) 『金春禪竹の研究』, 赤尾照文堂, pp.78~83

욱 다양성을 띠고 증폭되면서 전개된다. 秦河勝 전설이 임의적으로 예능과 관련지어져 만들어 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秦河勝가 어떤 배경 하에 일본 예능의 각 장르에 있어서 始祖로서 부각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세에 이르기까지 변천하는 秦河勝 像을 좇아, 전설이 형성되는 배경 요인을 살핌으로써 翁猿樂 혹은 能 역사의 시초에 秦河勝가 등장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이때 秦河勝와 밀착된 聖德太子와의 관련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3.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와 聖德太子傳承

『日本書紀』는 秦河勝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첫째, 推古天皇 11년條, 聖德太子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불상을 제의해 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秦河勝가 나서서 불상을 모시고 廣隆寺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이다. 둘째, 推古天皇 18년條, 신라와 가야의 사신이 大和(야마토) 조정을 방문 했을 때, 秦河勝는 土師連免(하지노 무라지우사기)와 함께 신라의 사신을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기록. 셋째, 皇極天皇 3년條, 東國 富士 강변에 살고 있는 大生部多(오우베노 오오)는 무속인들과 함께 常世神(토코요 신)이라고 칭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벌레를 제의하고 숭배하기를 권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이것을 믿었고, 복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 秦河勝가 大生部多를 공격하였다고 하는 기록이다.

다음으로 平安時代(헤이안 시대) 초기에 성립한 『上宮聖德太子補闕記』(이하 『補闕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져 내려온다. 用明天皇 사후의 ‘物部守屋(모노베 모리아) 토벌전’에서 秦河勝가 軍을 이끌고 聖德太子를 수호하였으며, 패색이 짙어지자 태자의 지시에 의해 四天王像을 조각하여 바쳤다. 태자는 이것을 활 끝에 매달아 守屋의 가슴에 명중시켰고, 秦河勝는 술선해서 守屋의 머리를 베어왔다 라는 기록이다. 『補闕記』성립 후에 쓰인 『聖德太子伝曆』(이하 『伝曆』)도 동일한 기사를 실고 聖德太子가 迹見赤檮(토미노 이치히)에게 명해

서 守屋을 쏘게 하고 秦河勝가 머리를 베었다고 전한다.

위에서 들었던 『日本書紀』 첫 번째 기록과 관련된 것으로서 『補闕記』는 616년 이전 聖德太子가 山背(아마세)의 楓野村(카도노무라)에 이르러 훗날 이 지역에 首都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蜂岳(하치오카)의 남쪽에 궁을 세웠다는 것과, 이 때 秦河勝가 친족들을 인솔하고 와서 태자를 모셨기 때문에 태자는 기뻐하며 궁을 맡기고 신라에서 바친 불상을 하사하여 궁을 절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伝暦』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하지만 『補闕記』·『伝暦』의 物部守屋 토벌에 관한 이야기는 후세에 조작된 흔적이 농후하다. 『日本書紀』의 守屋 토벌전의 내용은 守屋를 쏘아 떨어뜨린 인물로서 迹見赤禰의 이름은 보이지만, 秦河勝의 이름은 없다. 이때의 河勝에 대하여 태자의 군사 참모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설도 있지만, 당시의 태자는 불과 14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참전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補闕記』의 기록은 『日本書紀』의 聖德太子 전승이 만들어진 후, 四天王寺의 古 기록과 秦河勝와 태자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秦氏 쪽에서 만들어 낸 이야기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補闕記』에 있어서 秦河勝는 聖德太子의 측근으로써 크게 클로즈업되면서 태자와 함께 ‘說話’ 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후, 널리 퍼진 守屋 토벌의 설화에 있어서의 秦河勝와 聖德太子 양자의 관계는 『日本書紀』의 기록과는 더욱 상이한 것으로 발전한다. 먼저 『日本書紀』에는 기악의 전래에 대해 백제로부터 味摩之(미마지)가 전래시켰다는 기록은 보이지만, 聖德太子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비교해 『伝暦』의 기록에 있는 伎樂의 전래에 관한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악의 전래와 태자를 연관시킨 것은 『伝暦』의 기록이 처음이기 때문이다.¹²⁾ 『伝暦』에서는 聖德太子가 櫻井(사쿠라이)마을에 소년들을 모아 기악을 배우게 했다고 하며 기악에 종사하는 才人들에게는 課役을 면하게 해 주었다는 기록 등, 기악의 역사가 태자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¹³⁾

11) 森本美恵(1996) 「秦氏系樂家祖伝承」 『芸能史研究』132号、芸能史研究会、p.41

12) 阿部泰郎(1992) 「中世太子伝の伎樂伝來說話」 『芸能史研究』78号、芸能史研究会、p.18

13) 「太子(中略)則安置櫻井村、而集少年、令習伝。今諸寺伎樂舞是也。(中略)永業習伝、宜免課

『伝暦』이후, 일련의 성덕태자 관련 기록에서 기악의 전래에 관한 記述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秦河勝가 예능의 선조라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14 세기에 성립한 『聖德太子伝』에는,

日本の樂人の根本은 당나라 秦始皇帝의 15대 손이다. (중략)형을 川勝(카와가츠)라 하고, 동생은 川滿(카와미즈)라고 한다. 그들 형제의 자손에게 舞樂(부가쿠)를 전수하였다.¹⁴⁾

라는 기술이 있다. 당시의 문헌에서 종종 秦氏(하타 씨)의 시조를 진시황제로 하는 설을 볼 수 있으나, 秦氏는 4, 5세기 경 고대 한반도로부터 건너 온 도래 집단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 부분은 川勝(카와가츠) 즉, 秦河勝와 그 동생이 舞樂(부가쿠)라고 하는 예능을 배워 자손에게 전수시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秦河勝를 예능의 시조로 하는 설이 『太子伝宝物集』에도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川勝(카와가츠)의 아들 둘, 그 손자 셋, 또 川滿(카와미즈)의 아들 셋, 손자 한 명, 그 예능을 배워서 가업으로 하였다. (중략)우리 조정의 樂人은 모두 그 자손이다.¹⁵⁾

『聖德太子伝拾遺抄』도 일본의 樂人은 秦河勝의 자손이라고 적고 있다.¹⁶⁾ 이후 太子伝의 注釈書인 『太子伝古今目録抄』와 『聖德太子伝私記』등도 樂人의 선조인 秦河勝에 대해 記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聖德太子 전승과 함께 전개되는 秦河勝 전설을 보면, 聖德太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秦河勝를 예능 집단의 선조로 하는 설화가 함께 성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聖德太子가 예능을 일본에 전했고, 秦河勝로 하여금 처음으로 연희하게 하였다는 전설은 翁猿樂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役。即令大臣奏免」

14) 「日本の樂人の根本者、是、唐の秦の始皇帝より十五代の孫なりと。(中略)兄を川勝と号し、弟をは川滿と申しけり。彼之兄弟之子孫に、舞樂を習ひ伝へ給ふと文」

15) 「川勝の子息二人、其孫三人、又、川滿の子息三人、孫一人、習其秘曲、為永業。(中略)我朝の伶人、皆、此子孫也」

16) 「我朝の伶人、則、秦川勝造の子孫也」

것이다. 聖德太子는 중세에 있어서 예능의 유래담이 텍스트화 될 때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중세에 있어서 신화화 하는 聖德太子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秦河勝가 등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秦河勝가 예능사의 시원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답이 될 다양한 요인 중의 하나를 秦氏族의 翁信仰과 관련시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4. 秦氏族의 翁信仰(오키나 신앙)

일본 연극의 원류라 할 수 있는 翁猿樂(오키나사루가쿠)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翁神(오키나 신)’과 童子이다. 이 중 翁神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이지만, 翁神이란 일본의 토속적인 종교문화와는 이질감이 있다. 중세이전의 문헌에는 신들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그 모습이 노인으로서 형상화되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신들이 할아버지의 모습인 翁神으로 示顯하는 것은 중세 종교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翁神들의 특징을 비롯하여 翁神들이 도래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산악신앙의 세계에서 활약하는 山神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한 바 있다.¹⁷⁾ 대표적인 翁神인 八幡神(하치만 신)·稻荷神(이나리 신)·松尾神(마츠오 신)·白髭神(시라히게 신)·赤山神(세키잔 신)·新羅明神(시라기 명신), 摩多羅神(마타라 신)과 같은 도래계통의 신들은 모두 일본의 전통적인 산악숭배 사상과 외래의 종교문화가 습합되어 발전한 修驗道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신들이다.

이들 도래 계통의 山神들과 能의 기원에 있는 翁神과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더욱이 예능신인 翁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翁信仰을 짚어오던 것이 도래 집단 秦氏族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猿樂者들이 자신들의 시조로서 秦河勝를 숭배하는 사상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秦氏族이 山岳信仰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翁神을 제의 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배제할

17) 주3)과 동일.

수 없을 것이다. 신들의 유래를 적은 緣起(엔기) 종류의 문헌을 통해 山岳信仰의 세계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翁神들의 출현과 秦氏族에 대하여 살펴보자.

(1) 鍛冶翁(카지오키나)

八幡神을 主神으로 한 八幡信仰은 고대한국으로부터의 도래 집단이 전파한 신앙습속을 기초로 성립하였는데, 그러한 정황은 八幡神의 유래담을 적은 緣起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 八幡神의 근원에 대한 전설은 다원적이며, 八幡信仰의 성립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844년에 필사된 『宇佐八幡宮彌勒寺建立緣起』(이하 『建立緣起』)에는 八幡神이 처음 ‘辛國(카라구니·韓國)’에 강림한 후 각지를 이동하고 ‘御許山馬城峰(미모토야마 마키미네)’에 시현했다고 하는 순례설이 있는 한편, 八幡神을 応神天皇(오진 천황)의 정령이라 하면서 처음부터 ‘御許山馬城峰’에 나타났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전승이 하나의 유래담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 1313년에 성립한 『八幡宇佐宮御託宣集』(이하 『託宣集』)은 八幡神을 応神天皇의 정령으로 하는 설을 실은 한편, 辛國에 강림한 八幡神이 일본의 신으로 화했다고 하는 도래 설을 적고 있다.

이처럼 八幡神의 성립에 관해 다양한 기원설이 있는 것은 八幡神을 모셔왔던 宇佐(우사)·辛嶋(카라지마)·大神(오오가)의 세 씨족이 八幡神을 모시는 宮司(구지)¹⁸⁾나 禰宜(내기)¹⁹⁾, 祝(하후리)²⁰⁾로서 종사했다고 하는 사실이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대로이다. 『建立緣起』 冒頭の “大神·宇佐 양 씨족을 宮司로 정하고, 辛嶋勝 씨에게 祝와 禰宜職을 맡기다”²¹⁾라는 기록이 암시하듯이 八幡信仰의 성립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세 씨족이 八幡神의 성립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八幡信仰 연구에 있어서는 中野幡能(나카노 반노)의 업적이 매우 크다. 中野의 연구에 의해 八幡信仰의 성립문제의 대부분이 해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八幡信仰 성립에 대한 설명 중 도래계의 辛嶋(카라지마) 씨의 신앙

18) 神社의 최고 경영자. 제례, 기도의 의식을 행함.

19) ‘宮司’의 명령을 받고 제례의식이나 신사경영에 참여. 祝보다 한 급 위에 속하는 신관.

20) 신사에 모셔진 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禰宜’ 보다 한 급 아래인 신관.

21) 「大神朝臣·宇佐公両氏を宮司として定め、辛嶋勝氏に祝と禰宜職を任せる」

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점에 주목된다. 中野는 八幡信仰이 일본 고유의 神道가 대륙(특히 고대 한국)의 민족종교를 어떻게 수용 하였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의 요소로서 辛嶋 씨의 조상신 전설이 八幡緣起에 흘러들었다고 논한다. 八幡信仰과 관련된 전설에 있어서 고대 한국과의 관련을 추측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는 ‘母子神 전설’²²⁾ ‘日光說’ ‘童子의 降臨과 무속적인 鍛冶翁(카지오키나) 전설’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八幡信仰의 배경설화 중에서도 能의 기원에 있는 翁와의 관련을 시사해주는 요소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鍛冶翁이라는 무속적인 翁神의 출현이다. 12세기 경 성립한 『扶桑略記』와 『東大寺要錄』등이 전하는 八幡神의 출현 緣起에서는 八幡神이 도교 혹은 샤먼에 가까운 존재로서 현세에 모습을 나타낸다. 즉, 八幡神이 강림했다고 전해지는 宇佐(우사)의 산봉우리에 있는 연못가에 상서롭지 않은 모습의 鍛冶翁가 나타나자, 大神比義(오가히기)라는 신선에 가까운 수행자가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산속에서 3년간 곡식을 끊고 수행하며 기원한다. 大神比義의 힘든 수행과 기원의 결과, 모습을 드러낸 鍛冶翁는 八幡神의 현세에서의 모습이며 道士나 샤먼에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老體의 八幡神이 동자로 둔갑하는 설정에는 도교 혹은 무속적인 색채가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大神比義의 도교적인 수행담은 고대한국에 있어서의 신선사상이나 샤머니즘의 세계와 공통된 사상아래 전개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의 일화로서 김유신이 화랑시절 신라의 三山 중의 하나인 중앙의 석굴에 들어

22) 八幡信仰의 緣起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大隅正八幡宮本緣起」는 고대 한국의 시조신화와 공통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緣起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大比留女(오오히루메)라는 공주가 임신을 하자, 父王은 괴이하게 여겨 누구의 아이인가를 물었다. 大比留女가 꿈속에서 일광을 쬐고 나서 임신하였음을 아뢰자, 왕은 놀라서 훗날 탄생한 왕자와 함께 大比留女를 배에 실어 바다에 띄어 보냈다. 배는 바다를 표류하여 일본의 大磯(오이소) 해변에 도착하였다. 그 태자를 八幡(하치만)이라 칭하고 大比留女는 筑前(치쿠젠)의 산에 카시가 성모대보살로 출현하였다. 태자는 大隅(오오스미)의 八幡神社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 이상의 連起는 大比留女가 일광을 쬐고 난 후 태자를 잉태하였다고 하는 ‘일광에 의한 동자 탄생담’, 태자가 배에 실려 일본의 해변 가에 표착하였다고 하는 ‘동자의 漂着譚’을 담고 있다. 또한 바다에 표류하여 해안가에 표착한 모자가 함께 신으로써 화환 부분은 고대의 ‘모자신 신앙’사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공통된 신화를 『삼국사기』의 김부식을 둘러싼 전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八幡信仰의 배경설화가 고대 신라의 석탈해 전설과 같은 ‘난생설화’와 흡사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가 재계하고 기원하자 한 노인이 나타나 秘術을 전수해 주었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화랑의 음식을 절제한 수행과 기원은 大神比義가 곡기를 끊은 채 수행하는 것과 동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랑 김유신의 일화에서 본 수행과 그에 따라 얻어진 노인신과 교류하는 구조는 大神比義의 그것과 공통된다. 노인신인 翁神이 동자로 둔갑하는 설정, 大神比義의 곡기를 끊은 수행을 포함한 八幡神의 출현담은 일본토착의 산악신앙과 한반도 경유의 도교가 융합하여 전개된 修驗道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처럼 초기의 八幡緣起 설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면과 같은 鍛冶翁의 출현담이 12세기에 이르러 새롭게 쓰인 것은 일본에 있어서 산림수행이 시작되고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도교의 영향이 큰 수험문화가 전개되는 것과 얽혀 있는 문제이다. 중세에 산악 수험의 세계가 텍스트 화 되어 갈 때, 고대 한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토착화 한 무속적인 종교설화가 유입된 것은 아닐까.

앞서도 언급했듯이 八幡神을 모시는 신관·신녀 중에는 도래계의 秦氏族인 辛嶋 씨가 포함되어 있다. 『建立緣起』에 의하면 辛嶋勝乙目(카라지마스구리노 오토메)·辛嶋勝意布壳(카라지마스구리노 이후메)·辛嶋勝波豆米(카라지마스구리노 하츠메) 등의 辛嶋勝(카라지마스구리)씨의 딸들이 禰宜와 祝로서 八幡神을 제의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建立緣起』에는 그 집필목적이 “辛嶋氏の 禰宜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²³⁾이라는 견해가 있듯이, 대대로 八幡神을 모시고 제의하던 秦氏族 중 辛嶋氏의 무녀로서의 전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八幡神仰에 있어서의 중요한 종교행사인 ‘放生會’의 창시에는 辛嶋勝波豆米가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秦氏族의 일족인 辛嶋 씨 집안의 무녀들이 八幡神仰의 중심에 있으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는 사실은 秦氏族과 八幡神仰의 유착관계를 시사한다.

(2) 稻荷翁(이나리오키나)

稻荷神은 八幡神과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신이며, 두 신의 사이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八幡神이 鍛冶翁로 출현했던 것처럼 稻荷神이 모습을 나

23) 「辛嶋氏の禰宜としての重要性を強調するため」

타날 때에도 노인의 모습을 빌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두 신 모두 도래 집단 秦氏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稻荷大社の 본래의 緣起 설화인 『山城国風土記』의 기록 중에는 도래 집단 秦氏와 稻荷神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즉, 稻荷大社에서 稻荷(이나리)라고 하는 것은 秦中家忌寸(하타나카이에노 이 미키)의 선조인 伊呂具(이로구)가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쌀떡으로 표적을 만들어 활을 쏘자, 바로 흰 새가 되어 날아가 산봉우리에 앉았고, 그곳에서 쌀이 났다. 쌀이 났다는 표현을 살려 ‘이나리’라고 하는 말이 신사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다. 이 설화는 秦氏가 稻荷大社の 창설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에 성립한 稻荷大社 관련 설화에는 秦氏가 제의해 온 稻荷神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새로운 설화가 첨가되었다. 즉 『稻荷大明神流記』에는 노인으로써의 稻荷神의 출현담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弘法大師 空海(쿠우카이)는 紀州(현재의 和歌山縣)에서 평범하지 않은 한 노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그 노인은 稻荷神의 화신이었다. 그 후 空海가 있던 東寺에 翁神인 稻荷神이 두 여인과 두 명의 동자를 동반하고 나타났다. 稻荷神은 東寺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이 神佛習俗의 입장에서 쓰인 『稻荷大明神流記』는 후대의 稻荷大社와 관련된 緣起 설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稻荷神의 翁神으로서의 출현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新猿樂記』에 의하면 稻荷大社の 제례의식인 ‘稻荷祭(이나리 축제)’에 있어서는 猿樂(사루가쿠) 계통의 다양한 예능이 행해졌는데, 그 중에는 쇠약한 노인과 젊은 여자가 등장하여 둘이서 선정적인 대사를 나누며 정을 나누는 장면이 연희되고 있었으며, 그것을 보고 있던 도시의 구경꾼들이 박장대소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처럼 稻荷社에 관한 翁(오키나)의 해학적인 ‘物真似(모노마네)’²⁴⁾가 일찍이 ‘翁’퍼포먼스의 하나로서 존재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일본 예능을 대표하는 가면극 能의 원류에 해당하는 翁猿樂(오키나사루가쿠)

24) 흥내내기 또는 흥내내는 연기.

에는 주술적인 기능을 갖는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곡은 고대 가요인 催馬樂(사이바라)에서 轉用된 것으로, 내용은 남녀 간의 애정표현이 주를 이룬다. 翁猿樂에는 稻荷祭에서의 翁에 의한 ‘物真似’와 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노래말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두 예능에 있어서 공통된 애정표현이 갖는 의미는, 민속예능에서 남녀 간의 에로틱한 신을 연희하는 장면이 多産은 풍요로 이어진다고 하는 고대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처럼, 주술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稻荷神의 유래를 설명한 緣起 중에는 유일하게 이질적인 성격의 『稻荷記』라는 문헌이 있다. 1332년에 쓰인 이 문헌의 앞부분에는 稻荷神을 일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 온 渡來神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에 의하면 稻荷神의 근원은 佛法의 수호를 위하여 일본에 건너 온 ‘新羅明神’이나 ‘赤山明神’, ‘摩多羅神’과 같은 도래 계통의 신들, 또는 秦氏 계통의 辛嶋氏에 의해 모셔져 온 八幡神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모두 토착적이 아닌 노인 신인 翁로서 불법수호의 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또 稻荷神이 일본에 건너 왔을 때, 있을 곳이 없어서 이동하고 있는 점도 八幡神이 鎮坐 할 곳을 찾아 전전하는 기록과 유사하다. 이러한 신의 이동은 도래 신이 일본으로 건너 와 간단하게 정착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외래신앙이 토착화 하는 하나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 下級の 翁神

秦氏が 제의 해온 또 하나의 翁神은 松尾神(마츠오 신)이다. 秦氏は 松尾神을 씨족 신으로 섬기며 松尾神社에서 신관으로 활약해 왔다. 『本朝月令』에 실린 『秦氏本系帳』의 「松尾祭祀」條에는 松尾神社가 秦忌寸都理(하타노이미키노도리)라고 하는 秦氏에 의하여 창건되었다는 설명이 보이므로, 그 성립과정에 도래 집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秦氏本系帳』에는 松尾神社의 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松尾神社에 모시고 있는 신은 九州(큐슈)의 胸形神社(무나가타 신사)의 신으로

무진년 3월 3일 松崎日尾(마츠자키히오)에 강림하였다. 그 후 701년에 秦忌寸都理가 日尾(히오)로부터 모시고 와 秦知麻留女(하타노 치마루메)가 ‘御阿礼(미아레)’를 세우고 기도하였고, 후에는 知麻留女의 여식 駕布(가후)가 신관이 되었으며 秦氏의 딸들이 대대로 松尾神을 섬겼다는 것이다. 秦氏族의 都理(토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에서 이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秦都理에 의한 神殿 창건의 기록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古事記』에는 松尾神社에 모셔져 있는 신 중에서 大山咋神(오오야마구이신)에 얽힌 鳴籟(나루가부치)의 설화가 실려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秦氏本系帳』의 松尾神에 관한 전설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丹塗矢伝説(니누리아 전설)’이라 불리는 이 설화는 秦氏라는 성을 가진 한 처녀가 강의 상류에서 떠내려 온 화살을 집으로 가져가 고이 모셔 놓은 후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여 남아를 출생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秦氏本系帳』에서는 강을 따라 떠내려 온 화살을 松尾神의 화신이라고 전한다.

또 ‘丹塗矢伝説’은 加茂信仰(카모 신앙)의 緣起에서도 볼 수 있는데, 三品彰英(미시나 아키히데)의 『古代祭政과 穀靈信仰』에서 松尾(마츠오)와 加茂(카모)의 설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설이 동양적인 ‘日光感精神話’의 흐름 속에 있으며 특히, 고대 한국의 신화 전승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²⁵⁾ 『日本書紀』의 ‘天之日矛(아메노히보코)’전설, 고구려의 시조신화 등이 ‘日光感精神話’에 속한다. 秦氏가 제의해 온 松尾信仰의 배경설화나 제의 양식이 加茂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것은 고대 한국의 신화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秦氏, 그리고 도래문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松尾信仰에 있어서 신이 翁로서 출현한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松尾神社에는 네 구의 神像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신상의 역사에 있어서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노인 신상 한 구가 포함되어 있다. 秦氏가 직접 관여한 松尾信仰에 있어 翁神이 나타나는 점은 八幡·稻荷信仰과 공통되며, 더욱이 신상의 역사상 초기의 것이라는 점이 주의를 끈다.

25) 三品彰英(1973) 『古代祭政과 穀靈信仰』、平凡社、pp.547~554

신사의 유래나 고승의 내력 등에 대한 문헌을 모아 집필한 『元享積書』에는 松尾神을 翁로서 묘사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 제 20권 最福寺의 승 延朗(엔로)에 관한 일화에는 다음과 같은 松尾神의 출현담이 쓰여 있다. 어느 날 벼락에 의해 松尾神社 뒤의 커다란 나무가 부러질 듯 쓰러져 신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松尾神社의 신관이 延朗에게 상의하자, 서둘러 나무를 베어낼 것을 권하였다. 나무에 도끼질을 하려고 하자 기이하게도 나무는 꺾히듯이 신전 쪽을 향해 쓰러지고, 나무 안에는 사리가 담긴 동탑이 있었다. 그래서 새롭게 신전의 남쪽에 삼층탑을 짓고 안치하였다. 이러한 緣起譚과 함께 松尾神의 출현담이 전해지고 있다. 즉, 最福寺의 연못에 있는 바위 위에는 항상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延朗가 노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松尾神이라 대답했다. 松尾神은 延朗法師와 불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하며, 使者 역할을 할 두 마리의 새를 건네 주었다. 여기서는 松尾神이 백발의 노인 모습으로 연못가 바위 위에 나타난 것이다.

松尾神의 翁로서의 출현담은 『元享積書』제 14권 六波羅蜜寺에 관한 일화에도 보인다. 六波羅蜜寺를 세운 空也(쿠야)의 앞에 노인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이다. 空也가 雲林院에 있던 어느 날, 성에 들어가자 한 사람의 노인이 성곽의 담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심한 추위를 느끼며 떨고 있는 모습이였다. 잠시 후 노인은 자신이 松尾神이라고 밝힌 뒤 空也에게 법화경의 독경을 부탁했고, 空也는 40년에 걸쳐 법화경을 읊을 때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었다. 松尾神이 기뻐하며 법의를 입자 몸이 따뜻해지고 한기는 없어졌다고 한다. 여기서는 법화경의 위력과 함께 翁로서의 松尾神의 출현담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元享積書』제 10권 叡山(히에이잔) 明達(묘다츠) 條에는 檀原寺의 勢春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明達의 前世부터 지금까지의 내력에 대하여 말하고, 스스로 ‘坂本之翁(사카모토노 오키나)’라고 고백한다. 본문 중의 注에 의하면 坂本の 翁는 松尾神이라고 한다.

이상의 세 기록에 따르면 松尾神은 노인신인 翁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翁의 松尾神은 모두 서민적인 혹은 천민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翁猿樂에서 翁神을 표상하고 있는 翁面 역시 고귀한 신의 모습보다는 서민적인 인간에 가까운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翁의 위상은 다

르지 않다.

松尾神을 포함하여 도래집단 秦氏가 제의하던 八幡·稻荷의 신들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공통점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秦氏와 같은 도래 집단에 의해서 전수된 고대한국의 신앙·습속으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으며, 山神이 翁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출현담이 緣起로서 텍스트 화 되는 과정에 신선사상·산악신앙·무속신앙과 같은 도래의 종교문화가 습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翁神은 중세의 산악수험문화, 특히 도래 집단 秦氏族의 信仰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翁神이 스스로를 秦氏의 후예라 일컫고 있는 猿樂者(사루가쿠샤) 집단에 의해 예능의 신으로서 숭배되어 온 것이며, 그 결과 翁猿樂가 탄생하였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산악수험문화에 있어서의 翁神이 바로 翁猿樂의 翁神으로 도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능의 신으로서의 翁神 성립배경의 하나로 秦氏族의 翁神信仰을 들 수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설을 보완하는 또 다른 단면이 산신의 鬼(오니)로서의 출현이다.

5. 荒神으로서의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

鬼(오니)는 괴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포악하고 두려운 존재의 상징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鬼는 선과 악의 양면을 지닌 존재, 또는 이방인적인 존재로서, 이를 숭배하기도 기피하기도 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한 『稻荷大明神流記』에는 稻荷神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山神 龍頭太(류도타)가 괴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稻荷神 출현담에 이은 「龍頭太事」라는 소제목의 설화에 등장하는 龍頭太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얼굴에서 빛이나 밤을 낮처럼 환하게 비춘다고 하는 괴이한 山神이다. 이 설화에 의하면 弘法大師가 稻荷山에서 힘든 수행을 하고 있을 때 龍頭太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를 제사 지내고 그 얼굴을 그려 神體로 삼았다고 한다. 稻荷緣起의 龍頭太에 대해서는 동북지방의 山男(아마오토코)로 전승되고 있는 그로테스크한 古面과의 공통점이 지적되고 있듯이 무서운 鬼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龍頭太의 설화는 金春禪竹(곤파루 젠치쿠)의 『明宿集』에 전개되고 있는 翁面(오키나 가면) 전승의 세계와 유사하다. 金春禪竹가 말하는 鬼面(오니 가면) 과 일체인 翁面은, 기이하고 무서운 鬼와 같은 龍頭太가 翁로 나타나는 양면구조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龍頭太가 鬼와 같은 용모를 가진 동시에 산신인 翁와 합체 하는 구조는 鬼面과 翁面이 同體라고 하는 金春禪竹의 ‘翁論(오키나 론)’과 흡사하다. 秦氏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강한 金春禪竹는 稻荷神을 깊이 섬기고 있어 稻荷社에 참배하고, 그 곳의 유래담 등을 글로 남겼다. 이를 통해 金春禪竹가 龍과 노인이 互換하는 龍頭太 說話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을 秦氏라 칭하는 金春禪竹가 稻荷神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稻荷參籠記』를 저술하고, 특히 龍頭太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렇게 鬼의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金春禪竹(곤파루 젠치쿠)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술서 『明宿集』에서 秦河勝(하타노 가와가츠)의 출생에 대하여 泊瀨川(하세 강)에 홍수가 났을 때 상류에서 흘러내려 온 항아리 속에서 나온 아이였다고 적고 있다. 아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자라났고, 후에 충신으로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聖德太子를 곁에서 지키는 한편 태자의 명을 받아 翁猿樂을 연희하게 되었다고 한다. 훗날에는 翁猿樂을 자손들에게 가업으로 물려준 뒤, 세상을 등진 채 작은 나무배를 타고 떠났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明宿集』에 서술된 秦河勝 전설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秦河勝가)세상을 등지고 배에 올라 서해로 떠나려가 播磨(하리마)의 坂越(사코시) 해안에 닿았다. 사람들이 발견하여 끌어 올려보니, 신으로 화해 있었다. 인간에게 해를 안기는 포악한 신, 즉‘大荒神’이었다.²⁶⁾ (『秦河勝の事』)

荒神은 인간에게 포악하게 굴며 재해를 초래하는 신을 뜻한다. 『古事記』 『日本書紀』에서는 高天原(다카마노하라)²⁷⁾나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신을 ‘荒

26) 「空舟に乗り、西海に浮かび給ひしが、播磨の国南波尺師の浦に寄る。蜃人舟を上げて見るに、化して神となり給ふ。当所近離に憑き祟り給しかば、大きに荒るる神と申す。すなわち大荒神にてまします也」

27) 일본신화에서 天神이 있다고 하는 천상의 나라.

振神'이라 불렀다. 중세 이후에는 불교계의 三寶荒神 체계에 민간에서의 火神·家屋神 등의 신앙이 습합되었다. 기원이 오래된 荒神은 민간에 있어서의 火神이나 부엌 신(부뚜막 신)이며, 地神이나 山神으로서 출현하기도 한다. 특히 중세에 있어서 荒神으로 대표되는 신들은 도래계의 山神들이다. 秦氏가 제의해 온 八幡神에 얽힌 緣起 『託宣集』중에는 八幡神이 찾아온 세 사람 중 둘을, 뒤를 이어 찾아간 다섯 사람 중 셋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하는 난폭한 神格이 묘사되어 있다. 산악신앙의 세계에서 활약하던 翁神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포악한 荒神으로서의 면을 예능의 신으로 화한 秦河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荒神은 산악신앙에 있어서의 鬼와 일맥상통한다. 鬼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면을 지녔고, 때로는 인간에게 재난을 초래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이러한 鬼를 기피하기도 하였지만, 후하게 접대하고 제의함으로써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숭배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점이 荒神의 이미지와 공통된다. 山神, 地神, 火神, 家屋神 등과 같은 荒神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성들여 제의하면 오히려 복을 가져다주는 신인 것이다. 荒神으로 화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던 秦河勝 역시 大避神社(오오사케 신사)에 안치시키고 제의 하자 서쪽 뱃길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²⁸⁾ 『明宿集』에서는 翁神이 大荒神과 동체라 설명하면서 동시에 秦河勝와도 一體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래계 山神으로서의 白髭(시라히게)·赤山(세키잔)·新羅(시라기)·摩多羅(마타라) 신들도 荒神으로서의 神格을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新羅明神의 출현담을 보자. 『園城寺伝記』에 의하면 新羅明神은 智証大師 円珍(엔친)이 당나라로부터 돌아오는 뱃길에서 만난 신이다. 円珍이 타고 있던 船上에 나타난 新羅明神은 스스로 “나는 신라국의 신이다”라고 밝히고 일본에 도착하는 대로 자신을 위한 사당을 지으라고 명한다. 이에 円珍은 新羅明神을 佛法의 수호신으로서 모시게 된다는 유래담이 전해지고 있다. 또 『園城寺伝記』에는 円珍이 중국의 嵩山에서 新羅明神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28) 「その後(大荒神として現れた秦河勝を)坂越の浦に崇め、宮造す。(中略)宮造りをおびたたくして、西海道を守り給ふ」

円珍이 嵩山에 있는 新羅明神의 사당에 이르자 갑자기 비와 폭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계곡의 물이 역으로 흐르며 천둥번개가 치는 이변이 일어났으며 그 와중에 사람의 얼굴에 뱀의 머리를 한 괴이한 것이 나타났다. (荒神과 같은) 분노한 모습으로 뒤를 따르며 큰 소리로 불렀다. 이윽고 산 위가 조용해지자 조금 전의 분노한 모습의 기이한 鬼(오니)는 긴 세월을 상징하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지팡이를 쥔 모습으로 둔갑하였다.²⁹⁾

위의 기사에 의하면 嵩山の 新羅明神은 괴이한 鬼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대 이어 다시 신선에 가까운 모습으로 둔갑하였다. 이처럼 鬼와 翁가 양면적인 관계를 지니고 나타나는 것은 翁猿樂의 세계와도 공통된다. 世阿弥(제아미)의 能 이론을 기록한 『申樂談儀』는 聖德太子가 손수 만든 鬼面(오니 가면)을 秦河勝가 하사받았고, 이는 大和猿樂(야마토사루가쿠)의 네 개의 座 중에서도 가장 전통이 깊은 金春座(곤파루 좌)에 전해졌다고 적고 있으며, 金春禪竹(곤파루 켄치쿠)의 『明宿集』은 이 鬼面과 翁面이 동체라고 전한다. 즉, 翁猿樂의 翁面은 선악의 양면을 지니고 있으며, 新羅明神도 이러한 鬼와 翁의 양면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散樂(산가쿠)라 불리던 실크로드 경유의 歌舞百戲가 猿樂(사루가쿠)로 발전하고, 猿樂에서 翁猿樂(오키나사루가쿠)로, 翁猿樂가 다시 能(노)로 변천했다고 보는 것이 일본예능(연극)의 역사이다. 이러한 전체의 흐름 속에서 鬼(오니)의 문제는 항상 翁 문제와 연동하면서 예능 성립배경의 관건이 되고 있다. 즉 ‘귀신·재난을 쫓는 追儼儀禮에서 翁猿樂을 거쳐 鬼(오니)를 중심으로 한 修羅能(슈라노)가 발생’³⁰⁾하는 能의 형성과정에도 역시 鬼(오니)와 翁(오키나)의 문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29) 『智証大師学唐地. 其国大中九年. 大師往登嵩山詣朱山王廟. 天卒然起雲. 大雨急至. 暴風拔樹. 溪水逆流. 電光奪目而鳴奔. 山谷晦冥莫知左右前後. 晦冥之中有化出者. 人頭蛇身. 其相甚可怖畏也. 忿怒跋扈大呼曰く. (中略) 雨息風斂. 山上稍靜. 時件怒鬼改先異形(中略) 首載千秋霜面揚五德波. 左手執錫杖. 右手持黃卷. 即出微妙音声』

30) 松岡心平編(2000) 『鬼と芸能』、森話社、p.33

6. 결론

중세 초, 猿樂者들에게 있어서는 翁神의 歌舞가 중심인 翁猿樂가 연기의 전부였다. 하지만 당시의 猿樂者들은 그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翁猿樂를 지키면서 스토리를 가진 연극을 성립시키는데 성공하게 된다. 즉, 翁神이 함께 가지고 있던 鬼(오니), 혹은 荒神의 측면을 극에 이용함으로써 翁猿樂가 能로 비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기의 역동적인 鬼 연기의 能이다.

이러한 翁猿樂와 그 후신인 가면극 能(노)의 세계에 있어서 秦河勝를 비롯한 秦氏族이 정면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종교문화사에 있어서의 秦氏族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일본연극의 기원인 翁猿樂와 그 후신인 能를 깊어져 온 예능집단은 자신들을 秦氏의 후예라고 믿고 있다. 이는 八幡神·稻荷神·松尾神과 같은 翁의 도래신을 제의하고 있었던 秦氏의 氏族信仰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翁猿樂의 성립, 또는 이 극에 등장하는 翁神의 유래를 秦氏의 翁信仰에서 찾는 연구는 秦河勝의 예능기원설의 형성배경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猿樂者들이 숭배했던 예능의 翁神은 鍛冶翁로 화한 八幡神과 같은 무속적인 측면과 稻荷神과 新羅明神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鬼·荒神으로서의 측면, 하급의 翁로 나타난 松尾神의 천민에 가까운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듯 산악신앙의 세계에서 활약하던 翁神을 비롯한 翁信仰을 배경으로 하여 주술적인 가무를 연희하는 예능의 翁神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山岳信仰 세계에서 활약하던 翁神들을 제의 해 온 도래 집단 秦氏는 秦河勝를 그들의 氏族神이며 동시에 그들이 제의 해 온 翁神과 위상을 같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세의 秦氏族의 종교사상이 聖德太子의 예능설화 속에도 작용하여, 秦河勝를 중심으로 한 예능 기원설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翁猿樂를 기반으로 탄생한 能의 연희집단이 자신들을 秦氏의 후예라 여기며, 그 시조를 秦河勝로 두고 있는 것은 聖德太子傳承 성립이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翁信仰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능의 翁神은 翁猿樂에 있어서 翁面(오키나 가면)으로 표상되었다. 翁

面은 중세 예능집단 특히 猿樂者(사루가쿠샤)들에게 있어서 神靈을 상징하는 ‘神體’로 받아들여져 숭배되어 왔으며, 이렇게 신성시 되어 온 翁面의 본질 또한 신이 翁로 때로는 鬼와 荒神으로 출현하는 修驗道の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猿樂者와 같은 예능 집단이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翁神은 秦氏族의 翁信仰을 중심으로 한 중세의 修驗道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秦氏族의 선조인 秦河勝가 翁神이며 동시에 荒神의 측면을 갖는 것도 중세의 翁信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能를 대성시킨 世阿弥(제아미)나 그의 사위 金春禪竹(곤파루젠치쿠)는 중세의 聖德太子傳承과 함께 예능 기원설화로서 전개되어 온 秦河勝 전설을 사루가쿠 예능의 기원담으로 원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秦氏族의 翁信仰을 기반으로 翁猿樂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담론이 猿樂者 집단을 통해 전승되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猿樂者 집단이 숭배해 온 翁神과 秦河勝가一體라 일컬어지는 사상도 같은 경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궁정 근위병이 예능인으로서도 활약했다고 하는 고대의 기록에는 秦氏의 성씨를 가진 인물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는 점, 四天王寺의 雅樂을 담당했던 예능인들이 秦氏一族이었다는 점 등도 翁猿樂의 성립배경을 논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임에 분명하지만,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伊藤正義(1970) 『金春禪竹の研究』、赤尾照文堂、pp.78~83
 表章(1986) 『能樂史新考』、わんや書店、pp.16~18
 能勢朝次(1938) 『能樂源流考』、岩波書店、pp.302~322
 松岡心平編(2000) 『鬼と芸能』、森話社、p.33
 三品彰英(1973) 『古代祭政과 穀靈信仰』、平凡社、pp.547~554
 阿部康郎(1992) 「中世太子伝の伎樂伝來說話」 『芸能史研究』78号、芸能史研究會、p.18
 森本美恵(1996) 「秦氏系樂家祖傳承」 『芸能史研究』132号、芸能史研究會、p.41

- ❖ 투고일 : 2008. 6. 30
- ❖ 심사일 : 2008. 7. 29
- ❖ 심사완료일 : 2008. 8. 1